



어느덧 30년, 지역인재 버팀목 되어준 (재)부산진구장학회

제30회 수여식... 80명에 1억9천만 원 지급

(재)부산진구장학회(이사장 김윤환)는 2월 20일 부산진구청에서 제30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 1997년 처음 지급한 이래 30년째다.

올해는 전체 80명의 장학생을 선발(대학생 43명, 고교생 37명)해 전체 1억9,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부산진구장학회가 배출한 장학생은 2,400여 명이 넘었고, 지급된 장학금만도 45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올해는 특히 지역인재 장학생 2명을 선발하여 1인당 500만 원씩 지급했고, 일반장학생에게는 대학생 1인당 350만 원, 고등학생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했다.

뜻 있는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1996년 설립한 (재)부산진구장학회는 현재 12명의 이사진을 중심으로 85억 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각급 기관장이 대거 참석해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축하하며 함께 기쁨을 나눴다. 장학금을 받은 한 부모님은 “장학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산진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김윤환 이사장은 “학생들이 부단한 노력으로 꿈을 이루고 부산진구의 큰 일꾼이 되어주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부산진구장학회(605-6469)



가야1동장학회 장학금 800만 원 수여

가야1동장학회(회장 신민경)는 지난 1월 29일 가야1동 주민센터에서 '제12회 장학증서 수여식 및 정기총회'를 열고 고등학생 2명과 대학생 4명에게 총 8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전달했다.

가야1동장학회는 2013년 9월 창립된 이래 12회에 걸쳐 총 158명의 지역인재에게 7,445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문의 : 가야1동(605-6822)



가야2동장학회 장학금 2,700만 원 전달

가야2동장학회(회장 장성도)는 2월 가야2동 주민센터에서 제25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학생 20명(대학생 11명, 고등학생 9명)에게 총 2,7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가야2동장학회는 1978년 발족했다.

2002년 창립총회를 거쳐 현재 3억3,000만 원의 장학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그 간 254명에게 3억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문의 : 가야2동(605-6853)



다문화가정 자녀 7명에 장학금 수여

부산진구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2월 10일 '아름다운 동행, 제4회 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됐다. 전달식은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한운정), 위탁법인 (사)부산여성의전화(하경해 대표)가 (주)답서비스(노학양 대표)의 후원을 받아 개최했으며, 관내 다문화가정 자녀 7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다. 문의 : 가족지원과 가족친화계(605-4364)

청소년예술학교 정기총회 개최

김호상 후원회장 1,000만 원 기부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 김호상 회장은 2월 10일 열린 후원회 정기총회에서 교육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후원했다.

김 회장은 2009년 후원회 창립 멤버로 참여해 매년 나눔을 이어오며, 청소년들이 예술을 배우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문의 : 문화체육과 예술계(605-4635)



전포2동 주민자치회

버스정류장 나눔벤치 설치

전포2동 주민자치회(회장 한재철)는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관내 버스정류장에 '냉·온열 나눔벤치'를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전포2동 주민자치회가 제안한 '2026년 마을의제 사업'으로, 기후 위기로 인해 심해지는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나눔벤치는 3월까지 버스정류장 4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한재철 회장은 “이번 나눔벤치 설치를 통해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이나마 쾌적해지기를 기대되며,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전포2동(605-6661)

가야2동 김홍자 씨 설 미담

21년째 '조용한 나눔'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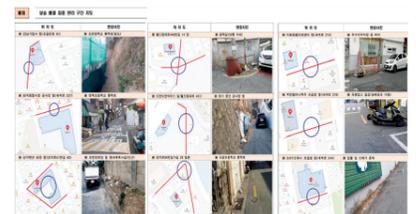
가야2동주민센터(동장 김영미)로 지난 2월 5일 라면상자(40개들이) 50박스(총 2,000개)가 배달 됐다. 보낸 이는 '가야2동에 거주하는 주민 김홍자'라는 이름만 썼을 뿐, 정확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이름만 있는' 이 기부자가 설 명절마다 이웃을 위한 따뜻한 성품을 보내온 것이 올해로 21년째다. 매해 이어진 그의 나눔 실천은 지역사회에서 이웃사랑 실천의 귀감으로 칭송받고 있다.

기부자는 “조용히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라고만 전했다. 문의 : 가야2동(605-6842)

초읍동, 청정백세 마을 위해

상습 불결지 관리지도 제작



초읍동(동장 정간호)은 쾌적하고 깨끗한 초읍동 조성을 위해 상습 불결 집중 구간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였다. 초읍동은 지난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통학로와 이면도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 주변 등 9곳의 상습 불결 관리 구간을 지도로 제작했다. 해당 자료는 향후 자체 환경정비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간호 동장은 “이번 지도 제작으로 상습 불결 관리 구간 정비의 연속성을 확보, 청(정)백(세)리의 초읍동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초읍동(605-6585)